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에프스파티오스 안티오키아의 총대주교

사순절 전 주일 / 용서 주일(아담과 하와의 낙원에서 추방됨을 기억하는 주일)

성 레온 로마의 주교

제4조 / 조과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4조 부활 찬양송 / 82, A 214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전 주일 시기송 / 220, B 271

• 사도경: 로마 13,11-14,4 / 봉독서 441

• 복음경: 마태오 6,14-21 / 137, B 92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참회의 만과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에프스파티오스 안티오키아의 총대주교

교회는 2월 21일을 안티오키아의 총대주교 성 에프스파티오스의 축일로 기념합니다. 성인을 포함하여 교회의 교부들이나 성인들의 생애에 대해 배울 때, 우리는 성 사도 바울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받게 된다.”(II 디모테오 3:12)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인들이 누리는 존경과 덕은 많은 사람의 반발과 질투를 낳고, 그래서 해로운 다툼과 성인들에 대한 모함과 추방 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지만, 그들의 굳건한 인내는 이 시험 속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모함을 당하고 추방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악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갇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마태오 5:11~12)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에게서 보상으로 받은 성인들의 완덕은 영원토록 빛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히브리 11,1)

사람, 동물, 물건 등 모든 창조물에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다. 그러나 창조주는 이름이 없다. 시작도 끝도 없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 그래서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물어 봤을 때 하느님께서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신 것인데, 그 뜻은 ‘언제나 존재하신다.’는 의미로서 이름이 없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은데, 그 신들은 모두 이름을 갖고 있다. 그것은 그들도 만들어진 창조물임을 뜻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창조물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뿐이지 아무리 어려워도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상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세상의 철학과 과학 그리고 의학 등은 영적 존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도와는 주지만 완전히 알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 인간의 머리로는 영적 존재를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어찌면 보이지 않는 존재를 완벽하게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 볼 수 있다. 오로지 영적 존재를 가까이할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믿는 대상들이 많이 있다. 눈에 보이는 대상 또는 보이지 않는 대상들 등 각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그 대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대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며 부정하고 보이는 대상을 원하는가하면,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

는 대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 존재를 찾으며 자기 나름대로 정신적 만족을 주는 여러 잡신들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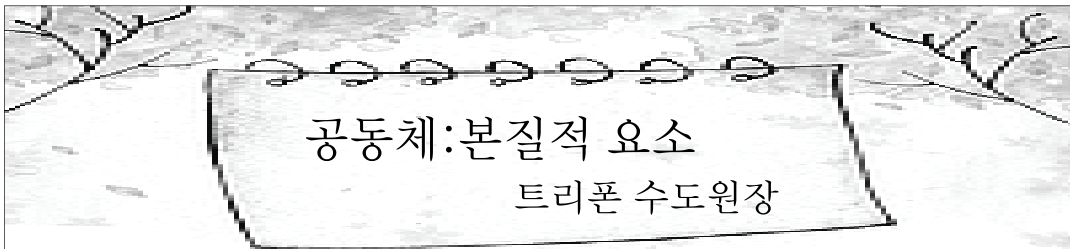
눈에 보이는 대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 대상을 찾는 사람들을 가리켜 현실 도피자 또는 정신적으로 약한 자라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강한지를 알 수 있다. 사실 세상은 이미 악의 소굴로 변했고 이런 소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옥과 같은 것이다. 이것에 물들어 살기 싫고 이것에 대항하여 살기 위해서는 보이는 현실 속에서 찾을 수 없기에 현실을 뛰어 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저기 종교적인 곳을 찾게 되고 종교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굳게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사람을 잘 사귀고 좋은 물건을 고르며 살아가듯이 종교 생활도 대상을 잘 선택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지만 너희 주야 말로 신이요 주이시다.”(신명기 10,17)

우리가 종교를 갖고자 신을 믿는 것은 현실적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와 증거와 증인이 실재적으로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것은 한민족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보여준 하느님의 여러 능력과 과학적으로도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약시대에 그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내심으로 그분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기 때

☞ 3면으로 계속



공동체:본질적 요소

트리폰 수도원장

그리스도교 신앙은 공동체적인 신앙으로서, 그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요구한다. 교회의 예배는 공동체적이며, 구원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은 진공 상태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몸에 속한 한 지체로서 그 몸의 삶에 동참하는 가운데 구원받는다.

당신의 구원은 내 자신의 구원만큼이나 큰 관심사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저지른 죄는 단지 하느님에게만 거역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거스르는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없다. 성 사도 요한은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요한1서 4,20)

사람들이 다른 이와 함께 어울리지 않고 점점 더 많이 홀로 지내는 것을 보게 될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사귄 때 우선 인터넷을 이용하고, 그리곤 아마도 실제로는 결코 만나지 않을 사람과 ‘우정’을 쌓으려고 한다.

컴퓨터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려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적은 시간만 보내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젊은이들이 커피집에 앉아있지만 각자 따로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 문자를 주고받거나 이메일로 대화하는 것, 그리고 페이스북을 하느라 몇 시간이고 보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며, 사람들이 서로 고립되게 하는 것이다. 사람으로서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정신과 영혼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삶 안에서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이다. 컴퓨터에서 나누는 대화밖에 없는 우정은 크나큰 비극이며, 결국은 우리 사회를 망치고야 말 것이다.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신

을 믿고 따르는 것은 진리의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기에 그런 짓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소 식

대교구

■ 사순절 시작

내일 2월 19일 정결 월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영적 투쟁을 하는 기간으로 음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절제하고 사랑을 베풀며, 기도와 예배참여를 하면서 영적으로 잘 준비하여 주님의 수난과 부활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참회의 만과

오늘 성찬예배 후 참회의 만과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사순절을 시작하여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시간은 각 성당에 문의해 주십시오.

■ 정교 주일 성화 준비

다음 주일(2월 25일)은 정교 주일로서 성화 행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빠짐없이 성화를 준비하여 참례하도록 합시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설날맞이 행사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성당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어르신들께 세배를 올리고, 다 함께 윷놀이 등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합니다. 2월 25일 주일 성찬예배가 끝나고 설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신데즈모스(영어권 신자 포함), 장년회, 부인회, 슬라브어 사용 신자 단체들은 윷놀이 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순절 제1주간 예식

- 화 · 수 · 목 오후 5시 ▷ 석후대과
- 2월 21일(수)오전 9시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2월 23일(금)오후 6시 ▷ 제1성모 기립 찬양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지역 성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